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11.1	17.4	124,500	4.2	-27	-24	29.8	86.8	41.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742.7	21.8	414,000	0.7	-0.7	-4.7	8.7	5.6	4.7	0.7	0.6	14.1	14.7
현대알렉스틱	1,020.6	5.3	100,000	7.5	29.7	-13.8	-12.3	9.5	8.3	0.8	0.8	9.3	9.7
현대건설기계	1,812.3	8.5	183,500	1.4	10.5	-3.2	8.6	11.7	8.6	1.3	1.1	11.7	13.9
삼성중공업	4,674.6	17.2	7,420	2.2	-5.4	-1.1	14.7	46.8	232	0.5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701.6	4.5	25,200	3.3	-9.7	20.6	81.3	9.3	11.1	0.8	0.7	9.0	6.8
현대미포조선	2,020.0	10.0	101,000	5.3	6.4	0.5	28.3	21.8	15.7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74.4	6.9	3,530	0.9	15.0	3.2	6.6	71.0	17.7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674.1	23.6	99,900	8.1	24.4	73.7	83.6	17.6	17.2	24	22	14.6	13.3
두산밥캣	3,203.0	26.6	31,950	-0.9	2.2	-7.7	-10.8	11.7	11.0	0.9	0.9	7.4	7.6
현대로템	2,703.0	17.2	31,800	17.8	90.4	105.8	69.6	41.0	28.0	1.8	1.7	4.5	6.3
하이록코리아	375.7	49.1	27,600	2.0	15.2	7.4	22.7	12.5	11.4	1.1	1.0	8.8	9.0
성광밴드	360.4	17.0	12,600	4.1	9.1	-1.2	26.3	1,113.8	452	0.8	0.8	0.1	1.8
태광	386.9	12.6	14,600	3.2	23.7	-3.3	21.2	87.2	42.6	0.9	0.9	1.0	2.1
두산중공업	2,044.1	11.3	19,200	4.1	28.4	23.9	25.1	18.4	11.9	0.7	0.6	3.7	5.2
두산인프라코어	2,154.3	13.2	10,350	3.5	19.4	-2.4	19.1	7.4	6.8	1.1	1.0	15.6	15.0
두산엔진	468.4	3.5	6,740	3.5	21.0	72.8	82.9	-67.5	104.0	0.9	0.9	-1.3	0.8
한국항공우주산업	4,420.5	16.2	45,350	6.5	-6.7	-4.0	-4.4	35.7	253	3.6	3.2	9.9	12.9
한화테크윈	1,365.0	13.1	25,950	8.6	-6.0	-13.1	-27.0	25.7	15.7	0.6	0.6	24	3.7
LIG넥스원	933.9	10.7	42,450	9.4	-9.1	-19.4	-29.0	17.7	13.0	1.5	1.4	8.5	10.8
태웅	410.2	4.2	20,500	1.5	15.2	-4.0	5.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71.1	5.9	6,340	4.1	-12.3	-26.3	25.5	-46.6	66.7	2.0	1.9	-4.3	3.1
한국기본	271.7	13.6	6,180	3.2	9.4	-12.1	15.3	54.9	30.4	0.8	0.8	1.6	2.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SIW: 신조선가 지수 128p, 중고선가 지수 100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8p, 중고선가 지수는 100p로 전주와 동일함. 현대중공업은 Kyklades Maritime에서 31.9만DWT급 VLCC 2척을 수주함. 중국 Jiangsu New YZJ과 일본 Imabari는 Costamare와 Shoei Kisen에서 1.2만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5+2척씩 수주함. (Clarksons)

대만 양밍해운, 컨선 14척…중·일 조선 수주

대만 양밍해운은 그리스 Costamare, 일본 Shoei Kisen Kaisha와 1.2만TEU급 컨테이너선 14척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함. 용선으로 선정된 두 업체가 선박 발주에 나서면서, 중국 양즈강 조선과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 수주했다고 알려짐. 양즈강은 한국보다 척당 5백만달러 낮은 9천만달러를 제시했다고 알려짐. (EBN)

US crude rises above \$70

미국 WTI 가격이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70.18달러를 기록함. 유가상승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공급차질과 미국·이란의 핵협정 파기 우려에 따른 재자강화 가능성성이 원인으로 알려짐. 동기간 Brent유 가격은 배럴당 75.22달러를 기록함. (Upstream)

삼강에스엔씨, 유럽선사와 1.9억달러 규모 원유운반선 4척 건조계약 체결

삼강에스엔씨는 유럽 의명의 선사와 1.9억달러 규모의 텅커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수주한 선박은 11.3만DWT급 아프라막스 선박으로 알려짐. 삼강에스엔씨 관계자는 이번 계약의 RG 발급에서 정부가 4월 5일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한국경제)

Dorian set for major LPG fuel retrofit with Hyundai Global

현대글로벌서비스는 Dorian LPG가 보유한 VLGC 10척에 LPG추진이 가능한 Dual-fuel 엔진으로 개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Dorian이 보유한 22척의 VLGC 중 19척은 현대중공업, 3척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됐다고 알려짐. Dorian은 이번 개조를 통해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계획임. (TradeWinds)

현대중공업지주 독일 쿠가와 로봇사업 전략적 협력

현대중공업지주는 글로벌 로봇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쿠가(KUKA) 그룹과 전략적 협정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지주의 영업망과 A/S 기술력을 활용해 쿠가의 산업용 로봇을 2021년까지 6천대를 판매할 계획임. 현대중공업지주는 회사가 생산하지 않고 있는 소형 로봇으로 사업확장과 기술력 향상을 기대함. (머니투데이)

Floating production market rises as recovery takes hold

싱가포 컨설팅업체 EMA에 따르면 2014년 유가 급락 후 FPSO 발주가 없다가, 2016년 4분기부터 13건, 올해 3건의 발주가 있었다고 알려짐. 또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10건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FPSO 업황이 회복됐고, 현재는 유가급락 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분석함. (Upstream)

STX조선, 유조선 4척 RG 발급…추가 수주 청신호

STX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에서 5만DWT급 석유제품선 4척에 대한 RG를 발급받았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작년 그리스 선사 오션플랜(2척), 판테온탱커스(2척)으로 알려짐. 이번 RG 발급으로 글로벌 선사들의 우려도 가시면서 STX조선해양은 옵션분에 대한 추가 수주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자료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5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